분양마케팅·부동산개발전문기업
HI-NURI (주)누리산업개발
062) 956-1004

전남매일

들리는 기쁨! 새로운 인생!
SINCE 1982 국제보청기
광주본사 062) 227-9940 서울지사 02) 765-9940

제8115호 대표전화 062-720-1000 jndn.com (음력 3월 22일)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광주시 수영대회 해외관광객 맞이 '잰걸음'

협력여행사 10개 선정 호남지역 여행상품 기획
조직위 홈페이지 관광 배너 신설·안내소 운영

광주시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해외 관광객 맞이를 위한 여행상품 개발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수영선수권대회 참가자 및 관광객들의 여행수요에 맞춘 다채로운 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할 협력여행사들을 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두투어, 남해관광, 할리데이플래너스 등 10개 광주시 협력여행사들은 서울-광주-제주등을 잇는 전국단위 여행상품과 광주와 전남·북을 연결하는 광역단위 여행상품, 광주 도심과 무등산 등 광주시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광주권 여행상품을 출시·운영한다. 협력 여행사에서 기획한 관광상품에는 광주 내 관광지 두 곳 이상과 숙박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광주시와 광주관광협회는 합동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다섯 개의 매력적인 여행코스를 엮어 '남도 관광투어' 패키지 상품을 운영한다.

투어버스는 선수촌과 주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 역에서 출발하며 외국어가 가능한 가이드와 해설사가 상시 탑승한다.

시는 다양한 광주권 투어상품을 통해 광주와 담양, 나주, 목포, 여수, 순천, 보성, 전주의 핵심 관광지를 돌며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 속에서 전라도의 역사와 전통, 맛과 멋,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유 여행객을 위한 관광 정보도 촘촘히 제공된다. 시는 수영대회 기간에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유스퀘어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등 현재 8개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이외에 수영대회 선수촌과 주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 주변에 특별관광안내소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관광안내소와 주요 관광지, 전국 고속버스 휴게소에는 여행 홍보물 12만부를 비치한다. 외국 여행객들을 위한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또한 3만부를 발행해 보급한다. 역동적인 광주관광홍보 동영상을 참가 선수단, 운영진 수송버스에 탑재해 상연하는 등 관광수요 촉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행객들은 올해 3월부터수영대회 조직위 홈페이지에 신설된 관광전용배너인 '오매광주' (www.tour.gwangju.go.kr)를 클릭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광주 맛집, 숙박, 관광명소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외유학생 홍보단, 시민서포터즈 중 외국어 가능자, 5개 자치구, 한국관광공사,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광주관광협회, 숙박업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선발된 '관광서포터즈'도 수영대회기간 중 시와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난 5일 100여명 규모로 모집한 관광서포터즈는 5월 21일 시민의 날에 발대식을 갖고 수영대회 기간 중에 관광객들에게 관광 및 쇼핑 안내를 제공하는 한편, 주요 관광거점에서 친절, 질서, 청결 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한다.

/황애란 기자

기념주화 1만장 발행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주화가 발행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느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우리나라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주화 1만장을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념주화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며, 액면금액이 3만원으로 은이 99.9% 함유된 프루프(proof)급 은화로서 크기는 32㎜, 무게는 14g이다.

기념주화 앞면은 이번 대회의 슬로건처럼 평화의 물결을 가르며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역동적인 수영선수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뒷면은 슬로건인 'DIVE INTO PEACE'와 대회 로고를 담았다. 기념주화는 한국조폐공사가 지정한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판매한다.

/황애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경기장을 찾아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이낙연 "북러회담, 북 선수단 참가 좋은 영향"

수영대회 경기장 현장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경기장을 찾아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의 수영대회 참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을 찾아 대회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북한 선수단 대회 참가 여부에 대해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있고 오늘 열렸다. 오늘부터 몇달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움직임이 있다면 수영대회 참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현장점검을 마치고 "광주는 2015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는 등 국제대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시설과 대회 운영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 운영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한 사람, 홍보, 안전점검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면으로 이어짐 /황애란 기자

한전공대 설립 속도 붙는다

29일 도청서 이행 협약식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뒷받침 할 지자체와 한국전력간 '이행 협약식'이 확정돼 대학 설립에 속도가 붙게 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4시30분에 도청 서재필실에서 한전공대 설립 이행 협약식이 열린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의회, 한전에서 각각 5명씩 총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나주시, 한전은 협약식에 앞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협약서에 담을 각자의 이행 사항을 확정했다. 협약서에는 한전공대 설립 목표, 방향, 지향점, 지자체 지원안, 인재양성·인프라 구축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나주시의회가 재정확보 어려움 등을 들어 조건부로 심의·의결한 40만㎡ 규모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나주시가 도시개발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확정했다.

이행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전남도와 나주시의 재정 지원안은 법률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한전공대 설립에는 최소 5,000억원~최대 7,00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600억원이 예상되며, 앞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회 동의를 거쳐 부지매입과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다.

재정지원 규모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개교 연도인 2022년 3월부터 10년간 매년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발전기금 외에도 662억원을 들여 공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40만㎡와 대규모 연구시설 부지 40만㎡를 매입해 원형지로 한전에 무상 제공하게 된다.

캠퍼스 부지 40만㎡는 부영그룹이 1,000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혁신도시 내 부영CC의 56%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에 무상 제공한다. 제공될 부지 자산 가치는 560여억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행협약 체결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한전도 공대설립 방향을 확정지을 대학기본계획을 늦어도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근산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